

2022학년도 예술사과정 신입생 모집
미술원 미술이론과 일반전형 2차

논술

수험번호	성명	감독관 확인
------	----	--------

<문제 1>

정물화는 사물의 선택과 배치뿐만 아니라 각각의 사물이 지닌 사회적, 상징적, 심리적 의미를 통해 작가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물(①기타guitar, ②텀블러, ③신발 한 켤레)에 별도로 한 가지 사물을 더 포함시켜, 총 4개의 사물을 이용해 정물화를 간략히 그리시오.

그림을 그린 후 답안지에 자신이 그린 정물화의 제목을 적고, 이 같은 정물화를 통해 표현하려 했던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시오. (800자 이내 / 30점)

- 정물화를 그릴 때 주의사항: 제공된 A4 종이에 연필을 사용하여 그릴 것. 그림은 평가대상이 아니므로 간략히 형태와 위치만을 알 수 있게 표현해도 됨. 배경은 그리지 말 것. A4 용지는 가로 또는 세로 방향 모두 사용 가능. 오른쪽 하단에 수험번호만 기재해서 답안지와 함께 제출. (연습용 A4 종이도 함께 제출할 것).

<문제 2>

아래의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가) 플랫폼은 무엇인가?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플랫폼은 복수의 집단이 교류하는 디지털 인프라 구조이다. 따라서 플랫폼은 소비자, 광고주, 서비스 제공자, 생산자, 공급자, 심지어 물리적 객체까지 서로 다른 이용자를 만나게 하는 매개자 위치를 차지한다. 대체로 플랫폼은 몇 가지 도구를 제공해서, 그들 스스로 제품, 서비스, 시장을 구축하게 한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와 개발자 도구를 마련해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판매를 촉진한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그 연관 생태계(X코드, iOS SDK)는 개발자가 새로운 앱을 개발하고 판매하도록 허용한다. 구글의 검색엔진은 정보 플랫폼을 구비해 광고주와 콘텐츠 공급자가 표적 고객을 찾도록 지원한다. 우버의 택시앱은 운전자와 승객이 운전과 요금을 맞바꾸게 도와준다. 간단히 말해 플랫폼은 시장 자체를 구축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양한 집단을 매개하는 인프라 구조를 제공한다. 이는 데이터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사업모델보다 확실히 유리하다. 왜냐하면 플랫폼이 (1)이용자 사이에 위치하고, (2)그들의 활동이 일어나는 기초를 점유하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이용자의 활동에 접근하는 특권이 생겨난다. 예컨대 구글은 검색 플랫폼으로서 막대한 양의 검색 활동에 접근한다 (검색 활동은 개인의 변덕스런 욕망을 표현한다). 우버는 택시 플랫폼으로서 교통 데이터만이 아니라 운전자와 승객의 활동에 접근한다. 페이스북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로서 이런저런 사회적 교환에 관여하고 그 내밀한 기록에 접근한다. 게다가 점점 더 많은 산업이 온라인 활동으로 바뀌면서 (예를 들어 우버는 택시업계를 디지털 형태로 바꾼다), 결국에 점점 더 많은 회사가 플랫폼 발전에 종속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모든 곳에 작용하므로, 플랫폼 자체는 인터넷 기업이나 기술회사의 범위를 간단히 넘어선다.

(나) 늦은 봄밤이었다. 강연과 뒤풀이를 마치고 택시에 올라탄 뒤, 택시가 한강을 건너기 직전 횡단보도에 잠시 서 있는 사이 나는 강의 풍경을 바라보려고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어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뽕연 미세먼지 속에서 나타난 오토바이 한 대가 천천히 차와 차 사이를 헤치면서 내가 탄 택시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 순간 내 눈을 의심하며 다시 바라보게 만든 곳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눈높이보다 높은 대시보드였다. 경험대로라면 속도계 같은 계기판이 있어야 할 곳에 네모난 검정 패널이 커다랗게 붙어 있었고, 패널의 표면에는 아래 위 각 다섯 대 정도의 스마트폰이 빛을 내뿜고 있었다. 키가 작은 중년의 운전자는 헬멧 속 그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는 열 대의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너머의 도로상황을 응시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잠시 동안 눈앞에 펼쳐졌던 그로테스크함 때문인지 멍하게 있는 사이 그 오토바이는 이내 사라지고 말았다. 그 장면은 쉽사리 잊히지 않고 계속 뇌리에 남아 맴돌았고, 나는 우리 시대 이곳에서의 포스트휴먼에 대해 상상했다. 명멸하는 멀티스크린 대시보드에 넘쳐흐르는 데이터의 파고에 휩쓸리지 않고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의 망막은 그 너머 질주하는 다른 강철의 야수들이 득실거리는 한밤의 도시 모습을 제대로 트래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미로처럼 얽힌 복잡한 도심을 가로지르며, 플랫폼에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거쳐 스마트폰 화면으로 전송된 이 특수 배달의 임무를 무사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사이버펑크 영화에 나올 법한 그 장면에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는 왜 운전을 위한 혹은 생존을 위한 현실의 시야를 포기하는 대신 각종 지도 데이터, 주문 데이터, 지시 데이터가 명멸하는 작은 스크린들의 조합을 자신의 눈앞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을까?

1) (가)와 (나)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여 플랫폼의 개념과 그 속성을 설명하시오. (200자 이내 / 10점)

2) 위의 두 글은 플랫폼이 개인과 대중의 삶에 다양한 모습과 방식으로 개입하는 양상에 대해 상이한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가)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나)의 입장을 비판하시오. 위에서 설명한 플랫폼의 개념과 그 속성을 활용하여 서술할 것. (800자 이내 / 20점)

<문제 3>

아래의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가) 한 나라 안에서 지역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형태로 쓰이는 말을 단수 혹은 복수의 표준형으로 제시하는 것은 그 나라 국민들의 효율적이고 통일된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다. 국어 토박이 화자가 하는 말은 어휘의 형태나 음운의 발음에서 지역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여러 형태나 발음 중 하나 혹은 둘을 표준형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표준어 규정의 목적이다.

한글 맞춤법은 그러한 표준형을 문자로 적을 때 올바르게 표기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이므로, 표준어 규정은 한글 맞춤법의 전제가 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국어 언중들은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뚜렷이 구별하지 않고 한글 맞춤법으로 일원화하여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한글 맞춤법에는 표준어 규정에 귀속되어야 할 만한 예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어 언중들에게 실용적인 성격의 어문 규정을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표준어 규정에는 표준어를 정하는 사회적, 시대적, 지역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1. 사회적 기준으로서,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여야 한다. 교양이란 ‘학문, 지식,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위’를 뜻하므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사회적 품위를 갖춘 사람을 말한다. 물론 교양 있는 사람이라도 비어, 속어, 은어 등을 쓸 수는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있으므로 표준어의 사회적 기준은 상당히 느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어, 속어, 은어 등은 표준어이기는 하되 언어 예절에 어긋난 말들이므로,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는 말들이다.

2. 시대적 기준으로서, 표준어는 현대의 언어여야 한다. 여기서 ‘현대’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현재란 뜻이 아니라 역사적 흐름에서 현재와 같은 구획에 있는 시대를 말한다. 다른 사회적, 경제적 시대 구분과는 달리 언어 사용에서 현대를 구분하는 데에는 뚜렷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 20세기 초의 구어가 현대의 말로 간주되곤 하나, 21세기가 상당히 진행된 현재로서는 20세기 초의 구어를 현대의 말로 간주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한 시대에 최대 4세대가 공존할 수 있으므로 세대 간 시간 차를 30년 남짓으로 잡으면 넉넉잡아 100년 정도의 시간 차가 있는 말들이 한 시대에 쓰일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를 100년 전으로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 인식은 ‘현대’ 개념의 모호함 때문에 편의상 행할 수 있는 것일 뿐 객관적인 것은 아니다. ‘현대’는 국어 언중들의 직관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3. 지역적 기준으로서, 표준어는 서울말이어야 한다. 이는 표준어의 공용어적 성격을 가장 크게 드러내 주는 기준이다. 가령, 많은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공식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 각자의 지역어를 사용한다면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어의 조건으로 서울말을 제시한 것이다. 물론 서울말이라도 비표준적인 요소가 있다. “나 두 간다.”와 같은 말에서 ‘두’는 서울말이기는 하지만 표준어는 아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오랜 문자 언어의 관습적 쓰임에 영향을 받아 ‘도’라고 쓰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말은 서울 지역의 말을 바탕으로 하되 언중들의 교양 의식을 반영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말을 표준어의 조건으로 한다는 이러한 규정을 어떤 지역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표준어는 교육, 방송, 공식적 담화 등에서 써야 할 말이지 지역 사람들끼리 편하게 대화하는 경우까지만 꼭 써야 하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여러 지역어는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고 지역 사람들의 연대 의식을 강화하는 긍정적 기능을 하기도 한다.

(나) 그동안 어문 규범은 근대 국가 성립 과정에서 말과 글에 일정한 질서와 공통성을 부여해주었다. 이제 그 역할을 다했으니 놓아주자. 근대의 성과를 디딤돌 삼아 한 단계 올라 서려면, 성문화된 맞춤법, 표준어 규정을 없애야 한다.

어문 규범을 없앤다고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 어문 규범은 이미 뿌리내렸다. 올바르게 철자를 쓰라는 요구는 이제 문명인의 ‘최소’ 기준이자 사회적 장치다. 학교 교육, 다양한 미디어 환경, 공공언어 영역은 언어의 공통성을 유지하는 버팀목이다.

좋은 점은 많다. 우리는 늘 판결을 기다린다. “‘어쭈잡다’는 맞고 ‘어쭈잡다’는 틀린다”는 식. 반면, 영어에서 ‘요구르트’를 ‘yogurt’, ‘yoghurt’, ‘yoghourt’로 쓰지만 큰 문제가 안 된다. 어문 규범을 없애면 다양한 철자가 공존하게 된다. ‘마르크스’와 ‘맑스’, ‘도스토옙스키’와 ‘도스토예프스끼’를 보고 ‘이렇게도 쓰나 보군’ 하며 넘어갈 수 있다. 사회적 분노 지수를 낮추고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이 생긴다.

불문율이 언어의 본질에 맞는다. 말에는 사회성과 함께 역사성이 뒤엉켜 있다. 그래서 늘 애매하다. 강조점에 따라, ‘닭달’을 쓸 수도, ‘닥달’을 쓸 수도 있다. 말에 대한 의견 불일치의 유지와 공존이야말로 말에 대한 상상력을 촉발한다. 야구에서 ‘9회에 10점 이상 이기고 있는 팀은 도루를 하지 않는다’고 법으로 정해놓았다면 얼마나 재미없나. 성문법을 없애야 지역, 사람, 시대에 대한 관심이 살아난다. 말의 민주화와 사회적 역량 강화는 성문법의 폐지에서 시작된다. 꿈같은 얘기다.

성문화된 맞춤법을 없애자고 했더니 말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다. 구구단을 다 외웠으면 벽에 붙여놓은 구구단표를 떼어내야 한다. 현대

적 말글살이를 위해 한걸음만 내딛자.

성문화된 규범이 없어도 표기의 질서는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다. 성문법이 없는 절대다수 국가가 이를 보여준다. 한글 맞춤법은 공통어의 형성이라는 근대 민족국가 건설의 과제와 일본 제국주의의 언어말살 정책에 맞서 민족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과제가 겹친 시기에 제정되었다. 변변한 사전도 없고 합의된 표기 방법도 없던 상황에서 이론 커다란 성취다.

현행 맞춤법의 대원칙은 ‘(1)표준어를 (2)소리대로 적되 (3)어법에 맞도록’ 쓴다는 것이다.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원칙은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 우리를 괴롭히지만, 다른 표기 방안보다 여러모로 낫다. ‘갓흔’(같은), ‘바닷다’(받았다)처럼 소리 나는 대로 적자던 조선총독부의 ‘언문철자법’(1912)이나 이승만의 ‘한글 간소화 방안’(1954)에 비하면 한국어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그 결과 맞춤법은 한국어를 표기하는 독보적 원리로 정착되었다. 문화적 무의식으로 자리 잡았으며 공적 영역을 유지하기 위한 실천적 습관(아비투스)이 되었다. 다음 세대에서도 유지될 것이다. 즉, 역사성과 정당성을 확보했다. 그러니 겁내지 말자. ‘꽃밭에 안자 잇는 옵바’(꽃밭에 앉아 있는 오빠)라 쓴 책이 팔리겠는가.

문제는 ‘표준어’다. 맞춤법을 없애자는 주장은 결국 ‘표준어’를 없애자는 것이다.

가짜 소설 <쭈꾸미>의 한 대목. “오랫동안 투정을 부려 ‘짜장면’이 표준어가 되었다. 우리 ‘쭈꾸미’도 표준어로 인정받기 위해 상소문을 올리자!”(‘쭈꾸미’는 비표준어).

정상적인 국가라면 정해진 원칙을 유지하고 적용하려고 한다. 만 18살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투표할 수 없다. 이게 국가 행정의 특징이다. 일관성! 이 원칙을 말에도 적용해왔다. 하지만 원칙의 뒷배가 든든하지 않다. ‘예컨대’가 맞나, ‘예컨데’가 맞나? ‘예컨대’가 맞다. 이유는? 옛날부터 그렇게 썼으니까.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서도’에 쓰인 ‘-지만서도’도 비표준어다. 이유는? 자주 안 쓰여서. ‘넌판자, 넌판때기, 넌빤지’는? 모두 표준어. 다 자주 쓰여서. ‘겨뎡’은 비표준어다. ‘결뎡’이 표준어다. 이게 표준어니까!

맞춤법을 없애자는 주장은 결국 ‘표준어’를 없애자는 것이다. 표준어를 정하는 주체를 국가에서 시민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표준어에 대해 말들이 많으니 국가는 ‘복수 표준어’라는 묘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해방 이후 최고 희소식인 ‘짜장면’의 표준어 등극. 2011년 일이다. 10년 동안 5회에 걸쳐 74개가 표준어로 바뀌었다. 말은 날아다니는데 국가는 느리다. 심의회 횡수를 늘리고, 복수 표준어를 확대한다고 해결할 수 없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답이다.

말에는 저절로 질서가 생기고 관습이 만들어지고 하나로 정착하는 기질이 있다. 사람처럼 각각의 여정과 우여곡절이 있다. 말이 모이는 곳은 한 사회의 꽃인 사전이다. 언제까지 ‘쭈꾸미’들처럼 왕의 교지를 기다릴 텐가.

표준어는 언중의 언어생활을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동시에 우리말의 혼선을 줄이면서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나)의 주장을 반영하여 (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1. 사회적 기준, 2. 시대적 기준, 3. 지역적 기준으로 표준어를 각각 보완하는 안을 제시하시오. (1000자 이내 / 40점)